



슬픔을 넘어

Beyond Sorrow

내 마음 속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사람들 마음 속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그 마음들을 서로 마주보고 헤아리고,
보듬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 위로의 말보다 작은 책 한 권으로
당신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영통도서관
Yeongtong Library



천의 바람이 되어

I AM A THOUSAND WINDS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그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고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든 게 아니라고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s on snow.
I am the sunlight on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 rain.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이 되어
곡식 영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When you awaken in the
morning's hush,
I am the swift uplifting rush
Of quiet birds in circled flight.
I am the soft stars that shine at night.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고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cry,
I am not there, I did not die.

그곳에서 울지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들지 않았다고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고



어린이 추천도서

CHILDREN
RECOMMENDED
BOOKS



그리운 메이 아줌마

- _ 신시아라일런트저
- _ 햇살과나무꾼 옮김
- _ 사계절

주인공 서머가 사랑하는 메이 아줌마의 죽음 후에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탄탄한 구성과 따뜻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 낸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 삶과 참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가슴 뭉클한 작품. 뉴베리 상과 보스턴 글로브 훈복 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청소년 작품'과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올해의 최고 우수작'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내가 가장 슬플 때

- _ 마이클로젠글
- _ 켄틴블레이크그림
- _ 김기택 옮김
- _ 비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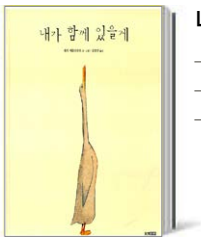
이 책의 작가 로젠이 가장 슬플 때는 죽은 아들 에디를 떠올릴 때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슬픔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 내는지에 대해 말한다. 정말 깊고 큰 슬픔을 아직 만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작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줄 것이다.



내 친구 브로디

- _ 조이카울리글
- _ 크리스무스데일그림
- _ 김연수 옮김
- _ 베틀북

주인공 브로디는 하루하루 힘겹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소아암 환자다. 하지만 브로디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유쾌하고 익살스럽다. 브로디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별의 날이 정말 찾아올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아마도 브로디 자신만은 그 날을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로켓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브로디가 그린 그 로켓에는 브로디 자신이 타고 있거나, 브로디의 꿈이 실려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있을게

- _ 볼프 에를브루흐 글 · 그림
- _ 김경연 옮김
- _ 웅진주니어

어린이들도 종종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죽음에 대해 아이들이 물어볼 때 보여주기 적당한 이 그림책은 아주 간결하고 시적인 글과 그림으로 어렵고 난처한 질문, 죽음에 대해 풀어낸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시키며,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너무 울지 말아라

- _ 우치다 린타로 글
- _ 다카스 가즈미 그림
- _ 유문조 옮김
- _ 한림출판사

할아버지가 죽고 난 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손자의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에서 상실은 더없이 크게 느껴진다. 아이의 표정과 모습에서 처음 접해 본 죽음의 슬픔이 덩 덩하지만 강하게 담겨 있고 그 손자를 향한 죽은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애뜻함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 죽은 사람은 누구나 산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는 할아버지의 말은 우리에게 죽음과 사랑,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가족을 잃은 마음과 생명의 순환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담아낸 그림책이다.



무릎 딱지

- _ 샤를로트 문드리크 글
- _ 올리비에 탈레크 그림
- _ 이경혜 옮김
- _ 한울림어린이

엄마의 죽음을 아이의 관점에서 담담하게 풀어낸 그림책. 아직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겪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변화와 극복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특히 '엄마의 죽음'이라는 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무겁지 않고 절제된 언어로 아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과 이별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한다. 아이 스스로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깊은 감동을 전한다.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 _ 레오 딜런, 다이앤 딜런 글
- _ 강무홍 옮김
- _ 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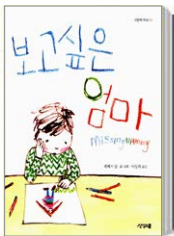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종교와 인종에 상관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삶의 다채로운 장면들을 아름다운 그림과 글 속에 담아 놓았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음을,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도 기쁨도 없음을 담담하게 들려준다.



익에게 웃으면서 안녕

_바바라 파크글
_오정택그림
_고은광순 옮김
_웅진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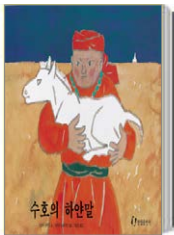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은 포엠피의 남은 '세 명의 가족'의 한달 동안의 이야기이다. 언뜻 보면 특이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너무 무도 평범한 가족이었던 이들이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린이의 시각에서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보고싶은 엄마

_레베카콥글 · 그림
_이상희옮김
_상상스쿨

이 책은 엄마를 잃고 아빠와 누나와 함께 살아가는 한 꼬마 소년의 이야기. 이 책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삶과 죽음의 아름다운 순환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준다. 나아가 가족의 소중함과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리움이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전하는 아름다운 그림책이다.



수호의 하얀 말

_오츠카유우조글
_아카바수에키치그림
_이영준 옮김
_한림출판사

몽골의 악기 '마두금'이 생기게 된 이야기. 몽골의 가난한 양치기 소년 수호는 우연히 들판에서 하얀 망아지를 발견하고 정성껏 보살핀다. 마침 원님이 주최하는 말달리기 대회가 열리고, 수호는 하얀 말과 출전해 우승하지만 원님에게 말을 빼앗기게 된다. 하얀 말은 화살을 맞고도 수호의 집으로 달려오지만 결국 죽게 된다. 억울하게 죽은 말은 수호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뼈와 심줄과 털로 악기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자신을 너무 아낀 수호 곁에 항상 있고 싶은 마음에 악기가 된 것이다.



슬플 때도 있는 거야

_미셸린느 먼디글
_RW.엘리그림
_노은정 옮김
_비룡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른들에게도 극복하기 힘겨운 죽음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죽음이 주는 충격과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찬찬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준다.



아빠가 내게 남긴 것

- _ 캐럴 캐릭글
- _ 패디부머그림
- _ 지혜연 옮김
- _ 베틀북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의 빈자리를 열한 살 아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려낸 초등학교 고학년 동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함께'라는 말을 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빠의 자리는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 몫인걸 깨닫는 소년의 성장이 차분히 그려진다.



안녕, 까미유

- _ 실비 데로지에글
- _ 구분선그림
- _ 신선영 옮김
- _ 문학동네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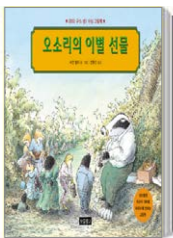
여덟 살 토마에게는 단짝 친구 까미유가 있다. 하지만 까미유는 백혈병에 걸리게 되고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책은 친구를 잃게 된 아이의 슬픔을 강조하기 보다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이의 천진한 모습을 중심으로 죽음에 접근한다. 여전히 죽음이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죽은 뒤 변신 로봇이 되지 않을까 꿈꾸는 아이들. 초등학교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이다.



여우의 전화박스

- _ 도다 가즈요글
- _ 다카스 가즈미그림
- _ 햇살과 나무꾼 옮김
- _ 크레용하우스

“여보세요, 아가...? 우리 아기는 언제까지나 엄마 마음속에 함께 있단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견딜 수 있어...” 아기 여우를 잃은 엄마 여우가 엄마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내아이를 보면서 아기 여우를 추억하고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는 이야기. 엄마의 뭉클한 사랑이야기가 감동 깊은 이야기로 다가온다.



오소리의 이별 선물

- _ 수잔 발리글 · 그림
- _ 신형건 옮김
- _ 보물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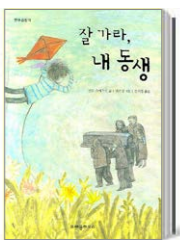
이 책은 아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따뜻하게 전하는 아름다운 그림책이다. 분명 죽음을 다룬 그림책은 부모가 아이에게 선뜻 건넬 수 없는 책이지만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하고 싶다면 이 그림책을 권한다. 삶에서 베풀고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에 더욱 아름답게 승화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삶을 좀 더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따뜻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젠 안녕

- _ 마거릿 와일드 글
- _ 프레야 블랙우드 그림
- _ 천미나 옮김
- _ 책과콩나무

2010년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수상한 <이젠 안녕>은 어린 이들에게 소중한 존재와 이별하는 것의 의미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하여 담담하게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갑작스런 이별에 슬퍼하는 해리와, 그런 해리에게 다시 찾아온 호퍼가 차근차근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이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부였던 애완견을 사고로 잃는 과정에서 해리의 아빠가 곁에서 묵묵히 해리가 이별하는 과정을 지켜봐주는 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잘 가라, 내 동생

- _ 빌리슈에즈만 글
- _ 민은경 그림
- _ 김서정 옮김
- _ 크레용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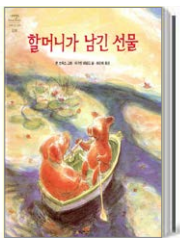
열 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된 벤야민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죽음과 이별 그리고 사랑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들려주는 동화책. 벤야민은 비록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가족 곁에서 도와준다. 아이들은 이 책을 읽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죽음과 이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천의 바람이 되어

- _ 아라이만 글
- _ 사타케 미호 그림
- _ 노경실 옮김
- _ 새터

1995년 아일랜드 공화군에 의해 희생된 스테판이라는 군인의 장례식에서, 9.11테러 때 세상을 떠난 클라크 씨의 추도식에서 낭독되는 등 유럽과 미국에서 애송되는 시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지은이는 대자연의 신비 속에서 평화롭게 삶을 시작하고 마치는 인디언의 삶 속으로 들어가,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사랑과 미움 등 상반되는 것들이 양면의 거울처럼 붙어있는 인생의 단면을 따뜻하게 관조하고 있다.



할머니가 남긴 선물

- _ 마거릿 와일드 글
- _ 론 브룩스 그림
- _ 최순희 옮김
- _ 시공주니어

손녀 돼지와 행복하게 살던 할머니 돼지에게 서서히 죽음이 다가온다. 손녀 돼지도 할머니의 죽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손녀 돼지에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손녀 돼지는 삶에 대해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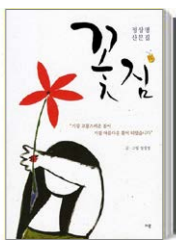


일반 추천도서

GENERAL

RECOMMENDED

BOOKS



꽃집

_정상명글 · 그림

_BF북스

화가, 환경운동가인 정상명이 1999년, 환경단체 '풀꽃세상'을 창립한 데에는 당시 스물네 살이었던 딸을 화재 사고로 잃은 개인사가 배경에 있다. 자식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어미의 삶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러나 비탄과 통곡은 절망만을 안겨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정신은 딸의 죽음 이후 더욱 맑아졌고, 더 이상 생에 대해 질문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찾은 해답은 바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자 감사'라는 것, '어떤 경우라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생에 대한 전면적인 긍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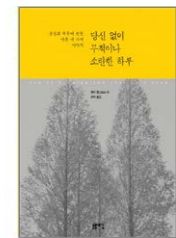


꽃 피는 고래

_김형경글

_창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를 잃은 열일곱 소녀 니은이는 모든 것이 바뀌는 상실감을 경험하지만 포경금지령으로 발이 묶인 이름난 고래잡이 장포수 할아버지와 일흔 넘은 나이에도 한글 공부에 열을 올리는 고래집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슬픔을 치유하고 홀로 성숙해지며 어른이 되는 법을 터득해나간다. 누구나 생의 한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마련이다. 슬퍼하는 법, 어른이 되는 법, 슬픔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며 성숙해지는 나은이의 이야기는 곧 모두의 이야기이다.



당신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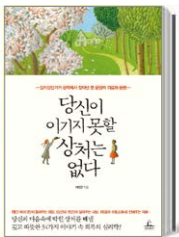
무척이나 소란한 하루

_멜바콜그로브 등글

_권혁욱김

_돌을새김

이 책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시인이 모여 감정의 상처가 상흔을 남기지 않고 덧나지 않도록 다독여주는 치유 처방전이다. 상실의 단계에 따른 애정 어린 조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진들 그리고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심장을 관통하는 짧은 시 94편을 통해 독자들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해 결국에는 그것을 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다.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_ 박민근 글
_ 청림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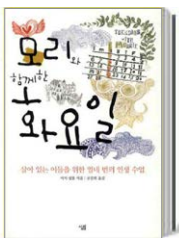
이 책은 심리 치유의 과정과 문학적 울림을 함께 전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상처받는지, 이야기의 강력한 힘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함께 알려준다. 누구든 잠시 마음의 길을 잃을 때가 있지만 누구든 마음을 기울이며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럴 때 희망의 이야기는 에너지를 채우는 씨앗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삶이 주는, 사람이 주는 상처로 아파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따사로운 이야기이다. 이 책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한다.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_ 허허당 글
_ 예담

스님의 글과 그림은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듯한 평온함을 준다. 그 평온함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은 것이라 더 큰 울림이 있다. 이는 연습하거나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그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허허당 스님의 글과 그림 하나 하나 모두 세상 모든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슬픈 눈물을 닦아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였기에, 이 책은 세상 풍파에 지치고 상처 받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_ 미치앨봄 글
_ 공경희 옮김
_ 살림출판사

루게릭 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리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가 모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서너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만나 인생을 주제로 가진 수업 내용을 적은 글이다. 그가 몸소 보여줬던 삶과 죽음에 관한 강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대는 무의미한 것들 대신 타인을 동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한다. 죽음 앞에서도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리 교수의 모습은 그 자체로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그의 가르침은 그가 세상에 없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상속의 법칙

_ 클레어비드웰스미스 글
_ 최하나 옮김
_ 새움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에 대한 에세이다. 저자는 열네 살 되던 해 엄마 아빠가 연달아 암 진단을 받으며 그의 행복한 시절은 점점 기울어 갔다.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만큼 부모의 죽음은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부정하고, 분노했으며, 절망하고, 무너졌다. 그는 이 과정을 흑백사진처럼 담담하고 섬세하며 놀랍도록 솔직하게 써내려간다. 이제 호스피스 상담사이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그는, 슬픔에 갇히지 않고 슬픔을 '지나는' 법을 이야기한다.



상실 수업

_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케슬러 글
_ 김소향 옮김
_ 인빅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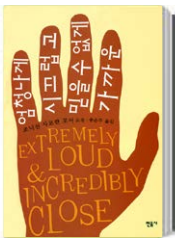
<상실 수업>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죽음과 남겨짐에 대한 실천적 도움을 통해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상실의 비탄과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채 상실의 고통을 이해라도 하는 듯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의 진정성은 상실의 아픔을 체험한 이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슬픔과 고통의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슬픔의 위안

_ 론 마라스코, 브라이언 셔프 글
_ 김명숙 옮김
_ 현암사

이 책은 슬픔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간 경험에 대해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우려는 친구나 가족들, 그리고 슬픔이란 주제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이 깊고 오래된 감정을 여행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찬찬한 대화와 모색, 단단한 문학과 철학 이야기로 슬픔이라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나는 이 따뜻한 에세이는 슬픔이 머무는 시간과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대해 조용히 응시한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_ 조너선 사프란 포어 글
_ 송은주 옮김
_ 민음사

엄오스카는 뉴욕 구석구석을 뒤져야 하는 매우 긴급하고도 비밀스러운 탐색을 수행 중이다. 그의 임무는 9.11 테러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품 속에 있던 열쇠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오스카는 저마다 슬픔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오스카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린 그의 할아버지와 오랜 세월을 고독과 싸우며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와 한데 얹히면서, 상실과 소통 불능, 기억 그리고 치유에 관한 보다 커다란 이야기로 나아간다.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_ 김준기 글
_ 시그마북스

국내의 대표적인 트라우마 연구자 김준기 박사의 심리 에세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트라우마의 본질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책. 저자는 이번 책에서 '람보', '밀양',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포레스트 검프'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영화 24편을 통해 트라우마의 원인, 증상, 치유의 관점에서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해결책 또한 제시한다.



좋은 이별

_김형경글

_사람풍경

인간의 삶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가는 만남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이별과 상실의 연속이기도 하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삶이 없고 그 누구도 '죽음'의 문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다. 따라서 잘 이별하는 것은 성찰과 성장의 필수 과정이다. 이 책은 문학 작품 속 인물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마음 치료방법을 처방한다.



지선아 사랑해

_이지선글

_문학동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누가 봐도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걷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삶의 걸음을 내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준 이지선. 살 가망이 없다고, '살아도 사람 꼴이 아닐 것'이라던 의료진의 비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를 이겨낸 그의 이야기와 가족들조차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는 낯선 얼굴이지만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집으로 가는 먼 길

_캐런 매퀘스천글

_이순영옮김

_문예출판사

위스콘신에 사는 세 명의 여성 마니, 라번, 리타. 삶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지금의 삶이 변화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지닌 또 한 명의 여성 재지. 그녀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언제나 활기차고 긍정적이다. 우연히 만나게 된 네 여성은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마니의 여정에 동행하게 된다.



천국에서 만난

다섯사람

_미치앨봄글

_공경희옮김

_살림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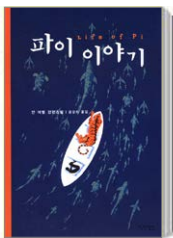
삶과 죽음을 끌어안는 따뜻한 휴머니스트 미치 앨봄의 작품으로, 팔십 평생을 놀이공원의 정비공으로 살아온 주인공이 어느 날 사고로 죽음을 당한 뒤 천국에서 다섯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주인공 에디는 다섯 사람을 만난 뒤에야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타인과 자신의 삶을 용서하고 이해하자마자,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을 깨닫자마자, 그의 인생은 영원한 의미를 얻는다.



천의 바람이 되어

_원작자미상
_아라이만글
_이현구옮김
_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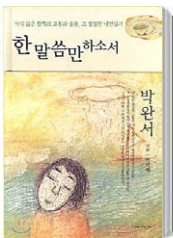
원작자 미상의 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는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로, 대지를 떠도는 바람처럼 이제는 무한 자유 속에 유평하는 영혼이 천국에서 보내온 메시지이다. 마릴린 먼로의 25주기 때에도 낭독되었고, 9.11테러의 1주기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 어린 소녀가 암송하여 많은 사람들을 눈물짓게 한 시다. 저자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천의 바람이 되어>를 각각 색다른 느낌의 원작과 사진, 시, 악보, 동화로 전해준다.



파이 이야기

_얀마텔글
_공경희옮김
_작가정신

2002년 제34회 부커상 수상작.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출간된 얀 마텔의 이 소설은 부커상 최대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열여섯 살 인도 소년 파이가 겪은 227일간의 표류기를 그리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한 소년이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절망과 공포와 고독을 경험하고,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말씀만 하소서

_박완서글
_세계사

이 책은 작가 박완서가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기록한 일기문이다. 1988년, 넉 달 상간으로 연이어 남편과 아들을 잃어야 했던 그 해, 고통과 슬픔에 찬 몸부림이 날 것으로 드러나 있는 이 글은 한 개인이자 어머니로서의 상처의 기록이다. 고통과 절망에 맞서 나아가 어떤 성찰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 기록이 일차적으로는 박완서 문학의 원천이며 나아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그 중에서도 슬픔과 절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자 위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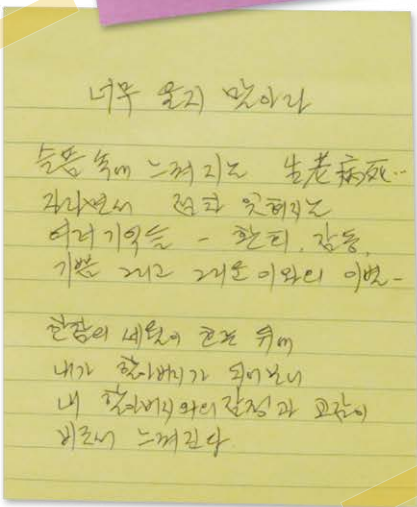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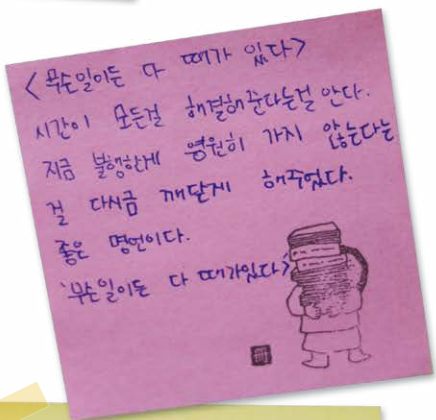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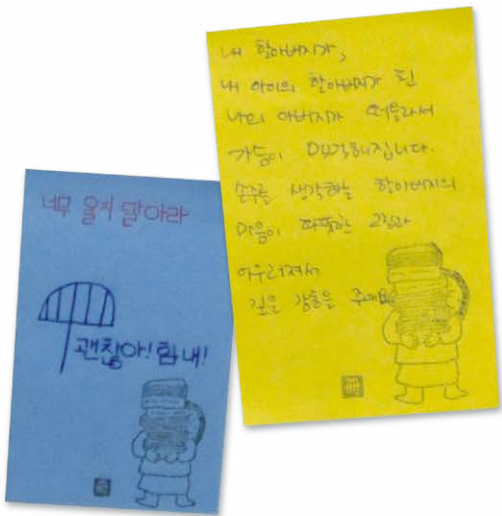
헤아려 본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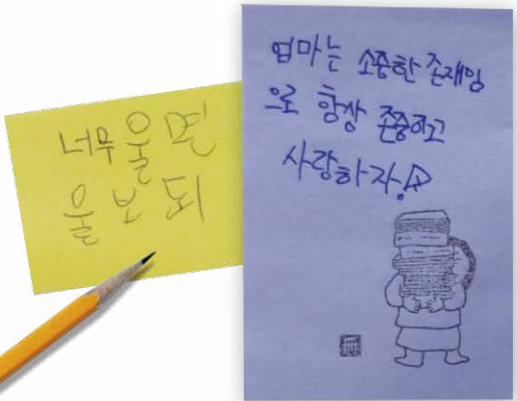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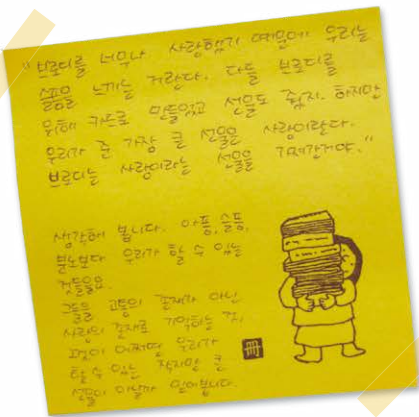
_C.S. 루이스글
_강유나옮김
_홍성사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증가인 루이스는 독신으로 살다 59세에 여류 시인 조이를 만나 결혼한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불과 4년만에 아내 조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이 책은 그가 사별이라는 고통을 겪으며 써내려간 일기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안에 귀착하기까지의 마음의 여정이 드러나 있다. 이미 <새 도우랜드>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루이스의 사랑, 그리고 아내를 향한 한 지성인의 애절한 순애보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느낌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슬픔을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림책



<내 친구 브로디>

내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아파서 세상을 떠났다는것은 상상해본적이 없다 그때는 못개울것이었어. 브로디는 누구보다 자기꿈에 대한 열정히 강한 친구였다 이런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게 정말 안타깝다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지난 추억을 이야기 할수 있는것을 브로디가 본다면 안심할것 같아 또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어야 겠다 "마음이 아프다는건 좋은 일이라고, 그건 아파서 우리 마음속 그리고 기억속에 보듬어 가 살아있다는 뜻이 강동환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결어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가디옥! 나목 승
파리시다

잘도개요 ~ ~

파이팅!

2014.65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나중에 후회할 것 알고 있다는게 무섭다.

6개월만 지나면

행복한 대학생일

펼쳐지겠지??

2014.5.2



내일이 오면
빛고 따서 있는 너
가 되게야!

파이팅!



'술래도 좋아, 슬픈편지가
그때도 너무 묻지 마아라.

네가 좋아한 너는 왔어
네란다'

Remember

제 목이 슬프고
할아버지가
편지 지를

남겨서
슬프고
행복한
것 같다.



힘을내어
힘내사
랑개





영통도서관
Yeongtong Library